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금세기의 첫해인
경진년 시정을 마무리하고
2001년도의 시정방향과 재정운영계획을
의원님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 한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시다만
어려운 시기마다 큰 힘이 되어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열리는 정례회의는
지난 일년간의 시정성과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외에도
WTO체제 무한경쟁시대의 대응과 남북통일을 대비한
시정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상호신뢰로 다져온
성숙한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금번하는
시대변화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알찬 미래를 설계하는
뜻 깊은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는 18만 파주시민들에게 있어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봄부터 몰아닥친 구제역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와 고통은 물론,
파주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예년보다 비록 심하지는 않았지만
8월의 호우와 9월초 태풍으로 약 52억여원에 달하는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의 조기수습과
수해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모든 시민과 공직자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추진일정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기과 고난』을 『기회의 계기』로 삼고
지역현안 극복에 아낌없이 동참해 주신 의원님과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의 成果와 敎訓

금년도 최우선 시정과제로써

『완벽한 수해복구와 예방대책』을 목표로

새 천년을 맞았던 우리시는

우기전 배수펌프장 가동만이 침수재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판단아래

『50일 수방작전』을 세워 전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 8월호우와 태풍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또한, 양축농가에 치명적인 구제역도

단합된 시민의 결집력으로 훌륭히 극복하면서

21세기 살기좋은 『으뜸파주』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맞아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한
행정력과 고객만족 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팀제 위주로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행정력 강화의 일환으로 재정관리, 차량, 환경 등

10개분야의 『종합정보시스템』과

개인별 컴퓨터, 전화기 보급 등

21세기 디지털행정에 필수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장기적인 행정정보화는 물론,
유관기관, 기업, 시민들간에 지역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키 위한
『지역정보화 10개년 계획수립』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실천 약속인
행정서비스헌장을 15개 분야로 늘리고
인터넷민원서비스, 민원후견인제, 시민의 소리실과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연중 운영하였으며

시민전산교육과 교양강좌, 여성전문화 양성교육 실시,
『시립도서관 문화센터운영』등 시민위주의 서비스 증진과
지식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IMF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공공근로사업과
취업박람회 개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등 지역경제살리기 시책을
중점 추진하면서
관내 생산품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해외파견과
금과지방산업단지내 외국회사 유치 노력 등
『해외세일즈 행정』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사업으로
임진각관광지내에 평화의 종각과 통일연못, 만남의 장,
『6.25 50주년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특색있는 관광기반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조성사업』이
연내 부지매입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파주장기발전의 기틀인
파주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재정비계획에
착수하여 지역균형개발의 골격을 잡아가는 가운데
금촌1·2지구, 교하지구 등
3개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통일동산 2단계 사업으로 문화예술종합단지인
헤이리아트벨리(서화촌)가 용도변경 승인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도
2002년도에 일부완성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파·오산·금송지방산업단지는 공사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의 기간사업인 도로건설분야는 봉일천-고양시계간 도로가 완료된 가운데 자유로 당동IC-적성 두지리간, 자유로 문발리-조리면 등원리간 국도와 국지도확장 사업과 송포-문산간 지방도로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능-아동간 도시간선도로와 내포-덕은간 지역도로망 등 15개구간이 완료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노선개선사업으로 장기간 논의돼 온 서울-광탄간 시내버스 노선과 적성-금촌의료원간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 운행되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더불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초환경시설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완료되어 민간위탁으로 가동중이며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과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도 정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금촌·문산·적성 등 임진강수계 주요지점에 건설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용역과 환경부설치인가를 받아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시책분야에 있어서는

질병예방 교육과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여성회관 전문교육 강화,

『청소년문화의집 조성』과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지원 등 계층별 사회복지 혜택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자립자금지원 등 자활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듯 시정 각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평가』에서 “전국 은상”과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도정시책평가 『재정운영분야』 “최우수기관”
 『지방세 체납액 평가』 “도내 최우수”
 『콩재배단지』에 있어서도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었고
 『쌀증산 평가』 “전국 3위와 도내 최우수”
 『농림사업 평가』 “전국 3위”
 『농정시책평가』 “도내 3위”에 입상하였으며
 『축산사업 종합평가』 “도내 우수상”과
 『제1회 경기도 한우고급육 품평회』 “우수”
 『제13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장려”,
 『공공근로사업 평가』 “도내 종합 3위”와
 『지방세분야 공공근로사업』 “우수”를 차지하는 등
 여러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직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의 계기』로 삼고 이를 극복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땀흘려 동참해 주신
 우리 18만 모든 시민의 승리이자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1年度 市政與件과 課題

2001년도는

국가적으로 21세기의 선진국 도전과

남북통일의 기틀을 굳게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로써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IMF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진해 온 『4대개혁』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며

『신지식과 정보산업(IT)』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과 더불어

제4의 물결로 대변되는 바이오산업(BT)을

중점 지원하여

신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돼 온 대북포용정책으로

6.15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민과 세계인의 지지 속에 남북화해와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이산가족상봉 및 왕래, 교차관광과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물적교류가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본격적인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시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주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소외된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목표로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법상의 투자계획이
정부의 남북교류대비 SOC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에 집중 투자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도 종전의 규제중심에서 남북교류에 대응한
『접경신도시 건설』과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통제완화 등
관계법령이 보다 전향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면서

장기간에 걸쳐 완성된
과주도시기본계획의 기본틀과 부합되는
지역균형개발 전략들을 하나하나 수면위로 떠올려
시민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개발을 가속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시의 내년도 『역점과제』로써

첫째, 금년에도 비중을 두었던
『신지식 육성과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역점을 두면서

둘째, 『균형적인 개발』로
『과주발전의 기틀』을 잡아가는 동시에

셋째, 『시민을 우선하는 환경친화도시건설』에
주력하고

넷째, 『다함께 일하며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복지실현』에
힘을 기울이면서

다섯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만족하는 성숙한 자치행정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여섯째, 『향토문화육성과 생활체육진흥』에 중점을 두고
2001년도의 파주시정을 운영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新知識 育성과 튼튼한 地域經濟基盤 造成

먼저, 신기술혁신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쟁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지역의 특성과 차별화된 전략을 무기로
보다 잘사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파주시지역 이미지통합과
특색있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CIP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자체들이
CIP작업을 비롯한 산업단지조성과 특산품개발,
문화와 자연자원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자본유치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자본의 유치와
투자가들이 우리지역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과 적정한 가격의 토지공급,
많은 인적자원의 수급 등 다른지역에 앞서는 매력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연이은 수해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앙과 도의 기간도로망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지역도로망건설과 산업단지조성,
기초환경시설 등 지역 SOC기반조성에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양호한 투자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기업구조 조정이 완료되고
실물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파주지역 경제도
전례없는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파주시의 장기발전계획인 『파주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지식육성과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을
갖추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 물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발전 전략인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하고
각계 각층 시민들에게 전산교육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을 늘리고
아울러 기능별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용정보전산망』 구축과 고용안정센터, 취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외국자본유치를 목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금과지방산업단지와 첨단외국인전용산업단지
금촌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계획이 설계용역과 설치인가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2002년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면서 부지조성 이후
개발이 장기 지체되고 있는 통일동산조성사업지구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유치가 확정된 『헤이리아트벨리』 사업추진과 더불어

내년에는 게임산업단지와
『다목적 남북체육인 만남의 광장』을
대한축구협회로 하여금 조성토록 유도하고
통일전망대 『곤도라설치』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진각관광지에 획기적 변화를 주게 될
『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부지를 매입하여
경기도 차원의 개발투자를 이끌어 내고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멸공관 등
민북지역 통일관광시설을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시가 개발한 DMZ철조망의 판매를 위하여
해외판촉활동도 전개하여 관광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파주시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관광사업의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발전대책 마련과
증가되고 있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과학 교육관 건립과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결미, 장단콩, 인삼, 부추, 참외, 백합, 산머루,
참게, 황복 양식사업 등
우리지역의 토종과 명품을 특화하며

포장디자인개발과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산촌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매년 개최중인 『장단콩·버섯축제』를 『파주농축수산물
종합축제』로 발전시켜 판매와 홍보를 촉진하며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농협하나로클럽을 중심으로
직매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임진강변 농어촌마을에 지역특성과 토종명품을 결합시킨
『관광테마마을』을 새롭게 조성하여 농촌경제 기반조성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地域均衡開發과 坡州發展의 기틀마련

지역개발정책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SOC확충과 연계 추진하면서

파주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재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21세기 파주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금년도 도내 몇개 지역에서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개발이 장기종합계획 없이

국부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난개발의 병폐와 문제점을 인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하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파지구의 상수도확장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때

‘98년도 개발을 유보하지 않고 개발압력대로 택지개발이

수용되었다면 난개발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개발은
장기도시기본계획의 연차적인 개발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행하겠으며

이에 따라 기본계획 1·2단계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용역을 추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교하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금촌1·2지구택지개발사업은 년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총 12건의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법원시가지우회도로(2차)개설 사업과
파주상수도확장사업, 민북지역 수북마을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통일동산진입도로 개설을 비롯한
검산~축현간, 성동~금산간, 내포~덕은간,
봉암~파주간 등 도로확포장사업과 문산시가지간선도시계획사업 및
금파지방산업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오산지방산업단지조성 등 9개사업은
년차별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장곡교재가설과 봉일천도시계획도로개설,
파주읍 소도읍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갈곡천개수공사, 금파1·두포·당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등
새로 책정된 7개 신규사업이 정상 착수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도 37호와
문발-등원간 국지도 56호선 확포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교하미니신도시건설, 경의선전철복선화사업과
물류단지건설, 문산신도시 건설구상등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市民을 于先하는 環境親和都市建設

날로 확산되고 있는 도시화 물결 속에서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은 자치단체의 생명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임진강수질 1급수 유지에 힘쓰며

시민단체의 환경가꾸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만 시민들의 생명줄인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천수질측정망 운영과

오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임진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보존과

환경기초시설 확충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키 위한

동두천권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면서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내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착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간이상수도 시설보강,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도 관로확장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로써 현재 가동중인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등이 적정 운영되도록 중점 관리하고 김포시와 공동으로 건립중인 첨단쓰레기소각장의 계획적 추진과 임진강수계 하수취약지역에 설치 예정인 금촌·문산·적성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무단투기 상설단속반 운영과 무단투기자 신고 포상금제 실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쓰레기종량제도를 정착시키고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가운데 도심지 도로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훼손은 광범위하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행정관리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주사랑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관내의 모든 시민단체가 산과 하천, 계곡,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공공자원봉사 활동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일하며 더불어 잘사는 生産的福祉實現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계층별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소외된 이웃없이 다함께 잘사는
생산적복지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대상자에게 기본생계비와 주민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의료보호 혜택과
소득지원형 취업구호사업을 실시하며

『장애인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재가장애인에게
생계보조,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등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의 재활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99년에 건립된 재활작업장에 화장지제조기를 설치하여
저소득재가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해환경근절을 위한 합동단속과 위반업소 인터넷공개,
신고포상금제, RED ZONE 출입감시 초소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음악회, 놀이마당 등 마음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 집』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전문성을 키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취미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여성회관에 『전문여성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기초질서지키기, 짚·풀공예품 생산 등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경노당 운영비 지원과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효친아파트』를 현재 22동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으며
중풍·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의 간호와 진료를 위한
방문사업과 재활치료를 병행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에 적극 힘쓰는 한편,
관내 공설묘지 중에서 한 곳을 공개적으로 선정해서
현대화된 『장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개발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장수요에 대응하고
장묘문화 개선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市民滿足의 成熟한 自治行政具現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현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이러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정보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종합전산망』을
구축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사무를 집중처리할 『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빠르고 편한 시민편익 중심의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2001년을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정착의 해』로 정하고
15개분야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운영과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호적, 인감, 건축물대장 등 11개 민원사무를 전산화하여
민원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민원후견인제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원서류를 정확하고 심도있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자치행정수행에 가장 중요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적인 투자로 짜임새 있게 운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금년에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로 제작 비치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치행정 능력배양을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하고

『지역정보화 10개년 계획』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구축과
1인 1PC 전산장비를 확충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하면서
전공무원과 시민에게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주요시책 결정에 참여하는
『파주인광장 게시판』을 운영하고 민간시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2회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겠으며

매월 정례적으로 실시중인
『무료법률상담』과 『시민교양강좌』를 비롯하여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건축신고 무료설계실』운영과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입 등
시민들이 호응하고 도움이 되는 시책을 연중 발굴하여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읍면동까지
청사울타리를 추가로 헐어내고 소공원을 마련해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친근감 있는 청사 분위기 조성은 물론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과주발전에 다함께 노력하는 격의 없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郷土文化發展과 生活體育活性化

우리의 향토유적과 전통문화를 소홀히 다룬다면
우리지역의 역사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건강한 파주사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체육은 물론,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향파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향토유적지 정비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파주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문화예술진흥 5개년계획』 수립과 『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전통문화육성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율곡문화제를 규모있는
종합문화예술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예총파주시지부를
중심으로 파주예술제, 임진강가요제, 서예전시회,
짚·풀공예품 공모전과 전통민속놀이 개선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토록 적극 지원하여
격조 높은 시민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지들을 짜임새 있게 정비하고자
임진강적벽조사와 유적지지표조사 및 발굴을 실시하고
황희영당, 보광사, 화석정 등 지정문화재를 정비하면서
향토유적 보수사업으로 적성향교와 용주서원 등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육진흥을 위하여
종목별 동호인단체를 꾸준히 지원하고
초중고교의 체육특기자를 선발, 집중 육성하면서

제정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각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시설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2001年度 財政運營方向

내년도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로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였으나 요사이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염려할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제개혁으로
우리시의 자체 세입재원이 약간 증가될 전망이나,
그동안 거둬들인 수해로 투자되지 못하였던 지역현안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세출수요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투자사업은

- 1)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며
- 2)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 3) 생산적인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186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77억원이 증가하였습시다만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3.9%로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잠시 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맺 음 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새 천년을 시작하는 금년 한해 동안
우리는 21세기의 힘찬 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 파주시정의 정책기조는
단순히 한해의 업무계획 뿐만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백년을 내딛는 우리 18만 파주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중심부!

임진강과 한강이 접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동란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와 접적지라는
이유 때문에 『소외된 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 천년과 함께 성사된 6.15남북정상회담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화해와 교류의 호기를 맞아
『희망과 영광의 땅』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초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남북합의하에 경의선 복원과 국도1호선 연결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발빠른 움직임으로
『파주도시기본계획』을 4년간의 산고 끝에
연초에 확정짓고 지금은 재정비계획을 통해
파주발전의 밑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다가온 파주발전의 기회를 맞아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파주시는 바야흐로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이라는
지역특성에 걸맞게 남북교류의 관문이자
『동북아 종합물류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9백여 파주시공직자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18만 시민의 영광과
21세기 파주번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파주시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 12. 5

파 주 시 장 송 달 용